

‘지지부진’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활로 찾나

협약 1년이 지나도록 임대사업자 선정 외 성과 미비

3000여가구 공급 예상...20일 도시계획 심의 ‘주목’

비수도권 최초의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이 뒤늦게나마 정상화 될지 주목된다. 오는 20일 열리는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지, 또 다시 유보돼 장기표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진통 끝에 올 상반기 임대주택 개발관리 전문업체인 ㈜스트라튼 알이(STRATIN R.E)를 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뉴스테이가 중산층 고급임대주택으로 각광받는 것과 달리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는 협약을 맺은지 1년이 지나도록 임대사업자만 선정할 채 이렇다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민의 우려감을 키웠다.

사업 대상지인 광주시 북구 누문동 일대 11만1430㎡는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으며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형 평형 위주로 가구가 구성되는 등 미분양 위험 탓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누문구역 사업 재개를 위해 협의하던 중 이 지역의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하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했다.

조합 측은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인 KB부동산신탁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매입가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KB 측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흥역을 지냈다.

뉴스테이는 또 지난 3월 ㈜스트라튼 알이를 새 파트너로 맞아 활기를 찾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전이 없었고, 지난 8월

사업 시행을 위한 1차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용적률과 층고, 인근 수장초교 학습권 등에 대한 논란 끝에 심의가 유보되면서 사업자체가 더욱 지연됐다.

또 도시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 인가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매매계약과 임대리츠 설립 등도 차질이 빚어졌다. 건축심사와 경관심의도 늦어져 구체적인 공급가구 수(3000가구 예상)조차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조합은 물론이고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행정 절차가 자꾸만 늦춰져 안타깝다”는 입장이며 국토부는 “장기 표류될 경우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는 다급해졌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2차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거쳐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도시재생국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합 측이 일반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조합원 분양가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성도 좋고, 공급 물량에 대한 미분양 위험이 원천적으로 제거돼 안정적”이라며 “도시 공동화로 침체된 광주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작도 못한 누문동 뉴스테이와는 달리 다른 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수원과 동탄, 위례 등 수도권에 고급 브랜드 뉴스테이가 속속 진행됐으며, 하반기에는 충북, 인천, 대구로 영역을 넓혔다. 올 연말까지 공급될 뉴스테이는 전국적으로 1만5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1.93 (-24.89)
- ↑ 금리 (국고채 3년) 1.37% (+0.04)
- ↓ 코스닥 670.64 (-4.10)
- ↑ 환율 (USD) 1120.40원 (+12.00)



광주은행 취약계층 후원금 1000만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11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제1회 희망나눔 걷기대회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지역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광주은행 서재수 부행장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이상천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서 개최하는 제1회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걷기대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무시민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서재수 부행장은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파리바게트 30주년 감사 행사 풍성 30% 할인·신제품 30종 출시



파리바게트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신제품 30여종을 선보이고 10월 한달 풍성한 고객 감사 행사도 진행한다. <파리바게트 제공>

파리바게트가 창립 30주년 기념 신제품 30여종을 출시하고, 최대 30% 혜택 이벤트 등 풍성한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트가 창립 30주년 창립 30주년(10월17일)을 기념해 ‘30년 고객사랑, 감동의 맛을 약속합니다!’를 테마로 10월 한달 간 고객 감사행사를 기획했다고 11일 밝혔다.

파리바게트는 ‘크립치즈 롤파이’ ‘꽃맛살 고로케’ ‘스트로베리 서프라이즈’ ‘30주년 베스트 롤케익 세트’ 등 창립 기념 상품 30여종을 선보인다.

파리바게트는 창립 기념 제품들을 더 많은 고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18여종을 선별해 시식행사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부 점포에서는 해피포인트 고객을 대상으로 베스트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최대 30% 가격 혜택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김대성기자bigkim@

한전, 매출 40조원 규모 남아공 화력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30년간 전력 전량 판매 계약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가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타바메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북서

쪽 약 300km에 위치한 림포포(Limpopo)주 라파레레(Lapalele) 지역 타바메시 부지내에 63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남아공 국영전력회사(Eskom)와 30년 만기의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된 전력을 전량 판매하는 BOO(Build, Own & Operate) 방식이다.

한전이 30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발전소 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약 357억

불(4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력판매 및 요금 지급을 남아공 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판매 및 채무회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업이다. 또한, 현지 광산회사와 30년 장기 석탄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은 향후 사업 관련 계약체결 및 재원조달을 마무리한 후, 2017년 4월에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발전소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은 국내의 대표적 발전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과 EPC 계약을 체결해 두산중공업이 보일러, 터빈 등 주요 기자재 제작과 공급 및 건설을 총괄하게 되며, 국내 다수 중소기업들이 수처리 설비 등 발전소 보조기기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수출 및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해외 동반진출 성공모델로서 향후 국내기업들의 아프리카 전력시장 본격진출의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

현대기아차 3종 美 편의사양 최고 등급

제네시스·투싼·K3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JD파워가 시행한 ‘2016 고객기술경험지수(Technology Experience Index)’ 조사에서 자사의 3개 차종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전체 7개 차급 중 최고점수를 받은 모델은 현대차 제네시스 DH(중형 프리미엄 부문)과 투싼(소형 부문), 기아차 K3(컴팩트 부문)이다.

JD파워가 올해 처음 시행한 이 조사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대한 고객의 경험과 사용도, 상호 작용 등을

측정한 것이다. 고객이 차량을 구매한 후 90일간 충돌방지, 주행지원, 엔터테인먼트, 커넥티비티, 내비게이션 등 첨단편의사양을 활용해본 결과를 평가하는 인종 종교차에 매각하고 벤츠의 신차를 재구매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는 전주 전시장과 함께 있던 벤츠 전주 서비스센터 내 사고 수리 부문 시설을 신축 건물 1층으로 옮겨 확장했다. /연합뉴스

벤츠코리아, 전주에 전북 첫 중고차 전시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북 최초로 전주 덕진구에 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전시장)을 신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4년/10만km 이내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178가지 품질 기준을 통과한 프리미엄 인증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시장으로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는 신차 재구매 프로그램인 ‘스타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기존에 보유한 벤츠 차량을 인증 중고차에 매각하고 벤츠의 신차를 재구매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는 전주 전시장과 함께 있던 벤츠 전주 서비스센터 내 사고 수리 부문 시설을 신축 건물 1층으로 옮겨 확장했다. /연합뉴스

진월·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SH SH BUILDING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임대·분양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빗고을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료, 커피숍, 안경(입점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6㎡,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료사용가능(150평)

땅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등기 가능 준공필

분양문의 (062)676-4006 · 010-5681-4015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중건건설(주)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망!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계약금 5%!(1,100만원~내집마련)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중소형 (구)26평 / (구)30평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0.01%의 992 후원금)

분양문의 (062) 351-4610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모텔하우스·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4-1번 농성역 7번 출입구 밀라레스시 빌딩

1층: (주)유탑디앤씨, (주)유탑건설, (주)유탑